

極超集積회로연구소 준공

三星電子, 次世代반도체 연구개발



三星電子(대표 姜晉求)는 11월 3일 경기도 용인군에 위치한 기흥연구소에서 李祥羲 과기처장관, 李東勳상공부차관보와 申鉉禧 삼성물산회장, 姜晉求 삼성전자부회장을 비롯한 내외인사 및 전임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LSI(극초집적회로)연구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삼성전자의 ULSI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인 16메가디램에서 256메가디램급까지의 기초기술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최첨단 연구라인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이번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연건평 5천6백평 규모의 ULSI 연구소를 준공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ULSI연구소는 0.1미크론(1미크론 - 1천분의 1mm)급 회로선폭의 공정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며 16메가, 64메가디램급 제품의 시제품 확보

뿐만 아니라 64메가, 256메가디램급 차세대 단위공정기술개발도 가능한 세계 최고수준의 크린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첨단반도체 제품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물성 및 재료분석센터와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실비업체와의 공동개발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과 환경도 겸비하고 있다.

또한 크린룸은 1입방피트당 0.5미크론의 먼지를 1개도 허용치 않는 CLASS1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금까지의 청정도 개념과 다른 최신의 첨단연구소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지난 83년 VLSI 반도체사업에 투자를 시작해온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올렸으며, 85년 10월 연구소 메가라인 완공과 함께 4메가디램, 1메가S램, 256KEEP 램, 갈륨비소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반도체개발에 성공해 왔다.

위치制御用센서 開發

金星 마이크로닉스

金星 마이크로닉스(대표 河太鳳)는工場自動化기기의 핵심부품으로 물체의 이동량을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位置制御用 정밀센서(엔코더)를 개발했다.

엔코더는 다관절로봇, NC 동작기계, 엘리베이터, 프린터 등 산업용기기에서 기계적이동량이나 변위를 검출해 이것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물체의 이동량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위치제어용 센서이다.

金星마이크로닉스는 최근 광에칭기술을 응용, 위치제어용 센서의 핵심부품인 회전부호판을 자체 설계 제작함으로써 엔코더의 개발에 성공,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엔코더를 90년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國際光學기기전 열려

5개국 76개업체 참가

國內 光學産業의 현주소를 한눈에 알 수 있는 韓國국제光學機器展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국광학기기협회와 광학공학협동조합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 전시회는 국내에서 三星航空, 金星社, 신도리코등 카메라업체와 서전, 한국OGK등 안경관련분야에서 46업체, 해외에서 美·日·獨·佛등 4개국에서 30개업체가 참가했다.

카메라, 광학응용기기, 광전자, 광섬유, 안경등 5개부분으로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삼성항공이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스틸비디오 카메라의 시제품이 처음으로 선을 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